



<PRNewswire>렉서스 호버보드 주행 영상 공개

-- 최신 **Amazing in Motion** 캠페인의 새로운 영상,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최종 테스트 보여줘

(도쿄 2015년 8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지난 6월 렉서스 호버보드를 공개한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 렉서스가 바르셀로나 꾸베에에서 실시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프로젝트를 최종 전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585051-lexus-hoverboard-ride-revealed/>

렉서스 인터내셔널 부사장 **Mark Templin**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 설계 및 혁신의 한계에 도전하고자 했다”라며, “이 ‘SLIDE’ 프로젝트를 하면서 움직임에서 즐거움을 창조하고자 하는 자사의 열정을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결합해도 호버보드를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기복을 넘나들고, 몇 가지 문제점도 극복했다. 결국에는 상호 간의 집념을 바탕으로 **Amazing in Motion**을 창조하는 디자인과 기술 철학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렉서스 호버보드 프로젝트는 18개월 전 자기부상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IFW Dresden**과 **evico GmbH**의 과학자들과 협력하면서 시작됐다. 프로젝트팀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프로 스케이트보더이자 호버보드 테스트 라이더인 **Ross McGouran**과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한 후 호버보드의 한계에 도전하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프로 스케이트보더이자 호버보드 테스트 라이더인 **Ross McGouran**은 “나는 지난 20년 동안 스케이트보딩에 빠져 살았다”라며 “하지만 마찰이 없는 스케이트보드를 시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했다. 특히 호버보드를 타려면 자세와 균형 기술을 새로 익혀야 한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렉서스 호버보드가 공개된 후 스케이트 문화와 기술 요소들을 결합해 특별히 제작된 호버파크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역동적인 테스트를 위해 호버파크 표면 아래에 설치할 최대 200미터 높이의 자기 트랙을 바르셀로나에서 드레스덴 시설로 공수해왔다. 이를 통해

렉서스는 스케이트보드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이동하는 것 같은 시도에 돌입할 수 있었다. 렉서스는 호버보드를 타는 최종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다. 수상 경력이 있는 감독 Henry-Alex Rubin이 촬영을 지휘했다.

렉서스 호버보드 기술은 초전도 재료를 액체 질소에 넣어 -197로 유지하는 두 개의 “저온유지장치” 통으로 구성된다. 렉서스 호버보드는 영구자석이 들어간 트랙 위에서 타게 된다. evico CEO Dr. Oliver de Haas는 “ 트랙의 자기장은 사실상 보드 내 초전도체 내에서 ‘얼어붙게’ 되고, 그에 따라 보드와 트랙 간 거리가 유지된다”라며 “이렇게 해서 보드가 공중에 뜨게 된다. 그 힘은 라이더가 보드에서 일어서서 점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라고 말했다.

렉서스 호버보드 영상 ‘SLIDE’는 고성능 GS F를 선보이며, 렉서스 브랜드의 창의성과 혁신을 소개하는 렉서스 ‘Amazing in Motion’ 캠페인 시리즈의 네 번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출처: 렉서스 인터내셔널(Lexus International)